

광주·전남 학교들 '글꼴 소송전' 노심초사

가정통신문·교육자료 무단사용에 디자인업체 배상금 잇단 청구 수도권 소송 이후 지역 줄소송 우려... 교육청에 대책 문의 줄이어

광주·전남지역 교육계가 '글꼴(폰트·font) 소송전'에 휘말리기 직전이다. 글꼴을 만든 디자인 업체 측이 지역 각급 학교와 교육청 등에 무단으로 글꼴을 사용하고 있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글꼴 디자인 업체들은 최근 수도권 사립 학교 등 40여 곳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길 경우, 조만간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아직 소송이 제기된 바 없으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다툼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학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터 이날 현재까지 전남지역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10여 곳에서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는 등 글꼴 무단사용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최근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서 4건의 사례가 발생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모두 최근 글꼴 디자인 업체나 법률사무소로부터 "컴퓨터 문서작업에 사용되는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사용금액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가 요구하는 글꼴 구입 비용은 200만~25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외주제작 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인쇄물에 해당 글꼴이 사용된 사실을 모르고 이를 PDF파일로 변형해 홈페이지

에 게시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일선 학교들은 상당수가 유료 글꼴이 들어간 가정통신문이나 교육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받은 학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은 현황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며 "업체가 소송을 확대해 지역 학교 홈페이지를 일일이 조사할 경우 저작권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향후 글꼴 디자인 업체들이 광주·전남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줄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업체는 2016년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건당 100만~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후 인천을 비롯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400여 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약 업체가 이 재판에서 승소한 뒤 광

주·전남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유료 글꼴 무단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면 대규모 적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에서 100개 학교가 각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그 금액만 2억원에 이른다.

특히 업체가 이미 수년전 사용했던 글꼴을 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공문을 보내는 등 대처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찾아내 문제를 제기하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료 글꼴이 어떻게, 언제, 왜 사용하게 됐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적 사안인 만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부동산업자 납치·상해치사 혐의 도주한 '국제PJ파' 부두목 추적

경찰, 자살 기도 공범 2명 검거

50대 부동산업자가 광주에서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 일당을 만난 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광주서부경찰과 경기 양주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일부터 21일 사이 홍씨 등과 함께 박모(58)씨를 납치해 차 안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박씨는 지난 21일 밤 10시30분께 경기도 양주시청 부근 한 주차장에 주차된 BMW 승용차 뒷자리에서 숨진 채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20분께 범행현장 인근 양주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한 공범 홍모(61)·김모(65)씨 등 2명을 검거했으며, 도주한 조씨를 납치·감금·상해치사 혐의로 추적 중이다. 홍씨와 김씨는 교도소에서 조씨를 만나 친분을 쌓았고 조씨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조사결과, '국제PJ파' 부두목인 조씨는 투자전문가인 박씨와 알고 지내

던 사이로 최근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9일 점심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으며, 이날 오후 3시께 노래방으로 이동해 10여 시간 만에 노래방에서 나와 서울로 향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 일당과 박씨는 20일 새벽 1시께 노래방에서 나온 뒤 조씨의 동생이 운전하는 BMW차량을 타고 같은 날 오전 6시 10분께 박씨 사무실이 있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 도착한 모습이 담겨있다.

경찰은 특히 노래방에서 나온 박씨가 비틀거리며 조씨 일당의 부축을 받고 차 안에 탑승한 점이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박씨가 만취해 비틀거린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들 4명이 10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머물며 마신 술의 양이 양주 1병 뿐이었다는 점에서 박씨가 이미 노래방내에서 심각한 폭행이나 약물 투입 등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일용직 근로자 임금 상승체불 악덕 건설업자 구속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적으로 체불한 40대 건설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근로자 임금 체불, 공사장 자재 편취에 이어 허위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A(45)씨를 사기와 근로기준법·조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일용직 근로자 25명의 임금 1700만원을 체불하고, 1억5000만원 상당의 공사장 자재를 가로채는가하면 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등 타지역에서 가명으로 건설업을 유지했으며, 악대의 고급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영대회 앞두고 광주천 정화 23일 광주시 동구 학동 인근 광주천변에서 시민들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하며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대인시장 주택 화재는 방바닥에서 발화

국과수 등 합동 정밀감식

부부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내 주택화재(광주일보 2019년 5월 23일자 6면)의 첫 발화지점은 방바닥이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광주동부경찰·동부소방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력 등이 이날 합동정밀감식을 진행한 결과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화장실과 연결된 방 내부 바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된 인화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진행된 국과수 부검에서는 부부

의 사인이 연기 흡입이라는 1차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식·부검 결과가 나오는데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6시55분께 대인시장 내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3층 내부(33㎡)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화장실에서는 집주인 김모(63)씨와 부인 홍모(6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같은 건물 2층에는 김씨 아들(34)이 잠을 자고 있었으며, 출동한 소방관이 잠을 깨워 구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중식 목포시장 선거법 2심도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광주고법 형사1부 판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사전선거운동 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중식 목포시장 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되는 1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음에 따라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의 직원교육이나 농협 조합원 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자신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고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간부·변호사 영장 신청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 팀장과 변호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김모 팀장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 변호사에 대해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팀장은 광주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다른 팀에서 수사 중인 광주권 부동산 관련 수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지난 21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김 팀장이 수사상황을 A 변호사측에 알려줬고, 이 과정에서 다시 다른 부동산업자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해당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 과정에서 금품 등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이 다른 경찰직원도 정보유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음주 교통사고 현장 지나다...말다툼 끝 사고 낸 운전자 폭행



○...새벽시간에 음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폭력까지 행사한 30대가 경찰서행.

○...2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입건된 A(35)씨는 이날 오전 5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앞에서 벤츠를 타고가다 전세버스를 들이받는 음주교통사고를 낸 B(3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을 수차

레 때렸다는 것.

○...이날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던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여성 2명이 B씨의 음주차량에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한 뒤 이들에게 조롱섞인 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해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역사 현장에서 독서 토론하기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역사는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 이해는 몸과 실천적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특히 5·18민주혁명의 역사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5·18민주혁명의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학자, 작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어서 강사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기간 2019년 5월 23일, 24일, 30일, 31일 (총 4회)

시간 오후 3시 ~ 6시

장소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동구 금남로 221)

대상 중3+고등학생(20명) + 학부모(10명)

지원 학생 1인당 4만원 교통비 지급(한 단체 당 최대 80만원 지원) + '책' 무료 배부

신청 ☎ 010-5205-5668 (문자로 연락 바람 단체 지원 환영)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담당강사
1 5월23일(목)15~18시	1. 인문강의 청년의 용기와 도전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한승원박사 3.토론:박해웅박사
2 5월24일(금)15~18시	2. 소설강의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웅박사
3 5월30일(목)15~18시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웅박사
4 5월31일(금)15~18시	3. 조별토론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장정희박사 3.토론:박해웅박사

●주관 | 소크라테스대화법연구소 ●주최 |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사)인문지형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